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다락방 모임 8월중 방학 9월 첫주에 다시 모인다

7월의 늦장마 후에 찾아올 8월의 무더운 날씨는 여름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8월은 또한 휴가철로 출타하는 이들이 많은 계절이다.

교회는 이러한 8월에 피차에 가정을 방문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락방 모임을 한 달간 방학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교구일꾼들은 일 주일에 한 번씩 전화심방을 하여 자신의 다락방과 교구의 성도들의 안부와 신앙상태 및 유고사항 등을 확인하고 담당교역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성도들 또한 휴가기간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다락방장이나 교구 목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의 유고사항이나 기도제목이 접수되면 담당교역자는 언제든지 심방을 하여 위로하게 된다.

다락방 모임은 9월 첫 주에 다시 모이게 된다.

단 다락방 형편에 따라 이 기간동안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돌 성경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다 25일 설치 기초작업 시작

현재 경기도 포천군 소재의 한 석재공장에서 제작중인 돌 성경의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났다.

우리교회가 제작중인 돌 성경은 가로 2.4m 세로 1.6m 높이 0.55m로, 무게는 약4톤으로 좌대 위에 올려지게 되며 웅장하면서도 미려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돌 성경의 펼쳐진 두 면에는 한쪽에는 십계명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주기도문이 새겨진다.

오는 25일(목) 돌 성경을 설치할 기초작업을 시작하며, 장소는 교회 정문 앞 본당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 아래 화강암 바닥이다.

돌 성경은 환난과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는 서울교회의 굳건한 신앙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서울교회의 이름을 새겨 넣어 외부에서 쉽게 우리교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로 2.7m 세로 1.6m 크기의 표지석도 함께 제작중이다.

표지석과 돌성경제막식은 28일(주일)오전8시에 갖는다.



금주의 성경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편56:4)

In God, whose word I praise, In God I trust;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ortal man do to me?(Psalm56:4)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 주제- “하나님 나라와 생명”

교육1국(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여름성경학교는 교회에서 갖게 되며 7월22일(월)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 모여 개회예배를 함께 드린 후 각 부서별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별히 초등부는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며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된다.

여름성경학교 개강예배는 7월23일(월) 오전 10시30분에 있다.

부서명	날짜	강사	주제	장소
유아부	7.22(월)	이중윤 목사/조대영 전도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02호
유치부	7.22(월)- 23(화)	이중윤 목사/이용자 전도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06호
유년부	7.22(월)- 23(화)	이중윤 목사/이영희 전도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102호
초등부	7.22(월)- 23(화)	이중윤 목사/신미숙 목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01호

장년부 수련회 7월26일(금)~27일(토)

장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주제로 이중윤 목사와 오정식 목사, 이용식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오는 7월26일(금)과 27일(토) 양일간 강원도 둔내 현대성우리조트에서 갖게 된다.

장년 부 수련회 준비위원회는 찬양과 교제의 시간은 물론 특강으로 부서별 성장전략을 위한 토의 시간과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풍성하고도 은혜로운 수련회로 준비하고 있다. 출발은 26일(금)오전 9시에 교회에서 한다.

6교구 가족소개 시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우리 교회는 교구식구들의 친목과 연합을 위해 매월 3째 주 찬양예배시간에 교구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달은 6교구의 순서로 교구 전 가족을 교회와 성도 앞에 소개하고 특별 찬양을 드리게 된다. 연습은 오늘 오후 4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이시아서 강해

남은 자에게 약속된 구원

(이사야 65장 8 - 12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롬 11:1) 라고 묻고는 "그럴 수 없느니라" (롬 11:1)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롬 11:5)고 말씀합니다.



이중운 목사

1. 남은 자의 구원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나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8절).

어떤 농부가 썩은 포도나무를 내버리려다가 그 중에 즙이 있는 살아있는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하여 나무를 보존시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복이 있느니라'는 썩지 않은 부분에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로 인하여 그 도시 또는 국가가 살려들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뿐 아니라 남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 혹은 국가에 이바지합니다.

2.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9절).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는 것은 유대 민족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유대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1)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때로 조상의 기업을 물려받기도 하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을 남은 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산은 유대 땅, 가나안 땅을 말하며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일한다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안심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가 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게 됩니다.

(3) 남은 자는 평안히 살게 된다

"사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10절).

사론은 갈렙산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옥하고 아름답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은혜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남은 자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입니다.

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시 양떼들이 거하는 우리가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범죄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곳으로 흉악한 곳이었습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골이 들끓는 곳이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남은 자들의 소유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황폐한 땅이라고 버린 곳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면 생명이 움틀 거리는 아름다운 자리로 변화됩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아골 골짜기 빈들에서 던져져도 그 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포도나무가 다 썩어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썩지 않은 포도 한 송이를 찾아내듯,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세상에서 자기의 참 백성을 분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3.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해 지비를 베푸신다

(1) 남은 자들은 좋은 분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거룩한 산,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산들은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 곳을 피난처로 삼고 안식처와 거주지로 삼아 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야곱의 영적 자손으로서 이 축복과 은혜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눈물골짜기와 고난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분깃이 주어지게 됩니다.

(2) 남은 자들은 자기 양떼를 위한 푸른 초장을 소유하게 된다

사론과 아골 골짜기는 전처럼 다시 가축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론은 읍바 근처 서쪽에, 아골 골짜기는 요르단 부근인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론과 아골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땅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빼앗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모든 곳을 소유하게 되며,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요 10:9)고 하심 같이 풀을 얻을 푸른 초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4. 버림받은 자가 받을 징벌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갖에게 상을 베풀며 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11절).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그들의 죄가 진술되고 후에 받을 벌이 선포됩니다.

(1) 그들의 죄목

그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성산을 잊었고, 시온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죄,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2) 그들이 받을 벌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12절).

그들에게는 원수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게 됩니다. 악을 행하도록 버린바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은혜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남은 자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트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취하여 가소서"라고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영준 목사님 가정을 찾아서



우리교회에 영어 동시통역 시스템 갖춰져 있음을 모르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 손영준 목사님은 서울교회 협동목사로 2부 예배시간에 영어 동시통역을 하고 계신다.

손 목사님은 현재 선교훈련원 M.T.I(Missionary Training Institute) 원장으로 미국 정통장로교 교단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이다. 이 곳 M.T.I는 외국으로 파송되는 모든 선교사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1950년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신 손목사님은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개혁장로교 신학을

공부하시고 1958년 도미하시어 여러 학교를 두루 다니시며 공부하시는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시고 미국인 교회에서 4년간 목회를 하셨다.

미국에 있는 동안 손 목사님은 미국대학생전도협회 IV.C.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에서 10년간 활동하며 그야말로 전도에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총신대 신대원에서 1977년부터 8년간 선교학 교수로, 1983년부터 지금까지 MTI 원장으로 이제는 한국선교에 정열을 쏟고 있다.

미국 유학시 교회에서 만난 사모님과 1963년 결혼을 하였고 두 아들과 네 딸을 두며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교회 4층 동시통역실에서 홀로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시는 손영준 목사님은 이 목사님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통역하기 위하여 예배 시작 전 하나님께 기도한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설교를 통역하는 손 목사님의 목소리는 청청하기만 하다.

이중윤 목사님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손 목사님은 선교학을, 이 목사님은 신약학을 공부할 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맺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신앙의 동지로 두 분은 한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피차 다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애쓰는 모습은 각기

다른 빛깔로 아름답다.

손 목사님의 이 목사님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학생 신분으로 당시 공부하던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이민 초기에 살기 힘든 이민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소평센터를 다니며 전도하던 모습, 교회를 세워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목회하며 조용했지만 뜨거웠고, 당당하나 결코 겸손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래서 서울교회에서 동시통역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다.

손 목사님은 몇 년 전 폐암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병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가보다 하고 담담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사명을 다 하지 못한 까닭인지 깨끗히 고쳐주셨고 지금까지 사용하시니 손 목사님은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 후 손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사명, 특히 한국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졌다.

손 목사님에게 하나님 일에 정념은 없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받은 선교의 사명을 다할 뿐이다.

허숙(편집부)

2002 대·청부 수련회를 마치며...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배유리(청년부)

직장 사정으로 인해 나를 포함한 몇몇의 청년부원들은 후발대로 하루 늦은 16일 새벽에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아주 명확하게 설교해 주신 이중윤 목사님의 "임하소서 성령이여" 특강을 시작으로 하여,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전달되었다.

또한 이번 수련회 기간동안에는 이상신 강사님의 "내적 치유"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바로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더욱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대학 청년부를 수련회 기간동안 정말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과, 그 번 곳에서 단 한시간을 있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련회를 마음깊이 응원해 주시러 만난 간식과 함께 들려주신 <바울 선교회> 집사님들, 여리장로님 내외분들의 관심과 섬김은 믿음의 선배님들로서 우리의 존경과 감탄을 자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물은 우리들의 물음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너희들보다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 우리들은 이제 뒤로 서서히 물러나야 하지만, 너희들은 서울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시며, 이런 수고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시는 모습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 아름다운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정진원(청년부)

사람들은 수련회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수련회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한 행사임에 틀림없지만, 나에게 수련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영적 전환점이 되어왔다. 유학생활 중 방학으로 잠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나에게 이번 수련회가 사뭇 부담으로 다가왔다. 특히 완전한 방학도 아닌,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었고,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면적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실로 이렇게 힘든 마음을 지니고 수련회를 갔던 적은 내 짧은 인생에서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이로 인해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의 실마리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자 다시금 결단한다.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한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강한 군사로 거듭나기 위한 고된 훈련들을 기쁨으로 달게 받을 것을 다짐한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기도를 앞서지 아니할 것을 결단한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첫 걸음은 기도다. 이제 기도를 향한 첫 관문을 뚫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심히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큰 성령님의 역사 하심을 믿기에 마음은 더더욱 든든하다.

수련회를 통해 기도의 힘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신재호(대학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변함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주시고, 또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면 성령님께 통하는 문이 열린다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어떤 식으로든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날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나는 한없이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김영호(대학부)

수련회 기간이 정말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수련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내용은 눈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자신조차도 보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기 싫었던 모습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의식 중에 안고 있던 두려움들, 자기 방어적이었던 저의 생각들, 힘든 상황속에서 스스로가 가지게 됐던 어두운 생각들, 스스로가 만든 요새로 둘러싸여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계셨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요새들을 모두 허물어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나 스스로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저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다짐들로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보다 더 자신있게 그리고 몇 몇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신감, 수련회를 통해서 만끽하시고 말씀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체계 보여주셨던 것들, 놓치지 않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됨을 감사할 것입니다. 이미 저의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 넘어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아이들의 천국 잔치 - 여름 성경학교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의 천국잔치가 시작 됩니다.
 유아부는 22일 하루,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22일, 23일 양일간있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는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나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나라, 함께 행복한 생명나라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성경학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진리를 아이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몽골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몽골과 몽골인을 사랑하며, 이방 족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식 달이 되었습니다. 270만 몽골인을 위하여, 특히 울란바타르에 사는 80만을 위하여, 함께 할 아멘교회 300명, 갈보리교회 70명을 위하여, 이제 그동안 준비한 서울교회 단기 선교팀 26명이 8월 6일(화) 출발로 7박8일의 몽골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고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래의 물질로 협조해 주시면 몽골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잘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첫째,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등) 150점, 아동 옷 150점, 기타 1개.
- 둘째, 의료 사역을 위하여 비타민C, 고혈압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신경통치료제, 외상 치료제, 비상약(두통약, 소화제, 구충제, 지사제, 해열제, 소독약 등)
- 셋째, 이·미용 사역을 위하여 파마약 100명분.
- 넷째, 지역 봉사를 위하여 물 티슈와 카레라이스와 미역, 김치, 생필품, 방송용얌프
- 그리고 선교단 활동을 위하여 필름과 6mm 비디오테이프, 여름 침낭 26개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몽골 혼인잔치를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단기선교단원들의 각 가정에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기획 [성숙한 서울교회 성도] - 작은 일부터 실천합시다

작은 일부터 실천합시다.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의 주위에서 흔히 보고 듣게 되는 낯익은 구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오랜 동안 들어왔기에 이제는 별다른 느낌 없이 지나치고 쉽게 잊곤 하는 구호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해 준다. 성도와 성도간의 좋은 관계의 형성은 물론이고 신앙생활까지도 더욱 윤택하게 해주며,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 주차질서, 서울교회 성도의 기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곤 하게 된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주차질서도 빼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당분간은 더 이상의 주차공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은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절대 주차공간의 부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사항들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문제 될 것은 없다. 말과 마음만이 아닌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1부 예배 이후 저녁 찬양 예배까지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은 지하 3층에 주차하고, 각 예배 후 돌아가는 차량은 교회 지하 주차장보다는 은마대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은마대로 주차의 경우 견인 혹은 차량 훼손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으나 주일에 한해 우리 교회 차량의 주차가 허용되어 있고 차량안내위원이 상주하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

교회정문의 주차공간은 노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비워두고 지하 1층의 장애인 주차 공간 역시 일반 성도들은 주차해서는 안 된다. 그밖에 구획선 외에 통로 등에 이중 주차할 경우 반드시 키를 꽂아 두어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전면 주차를 하여야 함은 비단 우리 교회에서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다.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내실 있고 성숙한 교회라야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내실 있고 성숙해지기 위하여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김시환(편집부)

▶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

우리 교회는 영,유아와 유치부에 해당하는 7세 미만의 아동은 주일 대예배의 참석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 예배인 1부 예배도 예외는 없다. 예배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건과 거룩이란 중요한 기본 정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영,유아나 유치부의 아동들이 다른 성도들의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유아부와 유치부 예배를 교회 설립 시부터 적극 활성화하여 발전시켜 왔으며 단순한 탁아의 개념을 뛰어 넘어 연령별로 세분화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갖춘, 아이들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교육부서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교사들 대부분이 유아부와 유치부에서의 교사경력 이 수년간에 이르고 부서의 최초 개설당시부터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내용을 아는 이들은 아직 백일도 안된 갓난아기도 안심하고 맡기고 예배에 참석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작은 실천은 오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내일의 승리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동정

- 지혜영 전도사 다음주 휴가-이태훈전도사 대행
- 이사 12교구 장경술성도, 전원순집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삼정A. 101/1103
전화 031)285-3506
- 개업 1교구 김태수 김은희 집사 연치과 539-3263
- ☞ 금주의 식사제공 : 노문환장로 · 장정화권사 가정
(어머니 천병희 권사생신을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국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몽골 단기선교팀, 농촌 전도팀의 승리와 아시아 로잔대회 성공을 위하여
2.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가 은혜중에 준비되고 시행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11부	오전 11시 20분
	111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1부	오전 11시
	11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